

역사문화유산 활용 야간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 '완산야행, 천년벗담' 으로 체류형 관광객 확보 나서

전주시가 조선왕조와 후백제 관련 문화재 등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객 확보에 나선다.

전주시는 올해 문화재청이 주관한 '야행(夜行)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완산야행, 천년벗담'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조선왕조와 무형유산, 선비정신 문화 등 3가지를 주제로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근 관광객원과 연계해 문화재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조선왕조의 분항이자 후백제의 왕도인 전주가 간직한 왕도(王都)의 유산을 찾아 떠나는 전주야행으로,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경기전과 전동상당, 종래지관, 풍납문, 오목대, 이목대 등 조선왕조 문화유산과 후백제 왕도 문화유산을 주제로 운영된다.

특히 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무형유산으로 즐거운 전주'를 선사하는 '전주에서 즐기는 맛, 멋, 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한옥마을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무형유산 교육과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교육·선양을 위한 복합공간인 국립무형유산원과 연계한 콘텐츠 운영으로 무형유산의 가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전주국제영화제 국제 프로그램 소개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JIFF)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이 30일 전북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경진 프로그래머가 영화제를 소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이와 함께 시는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문화재 관광루트를 구축해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수도인 전주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전주가 가진 무형유산을 넘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포괄한 폭넓은 관광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도 힘쓸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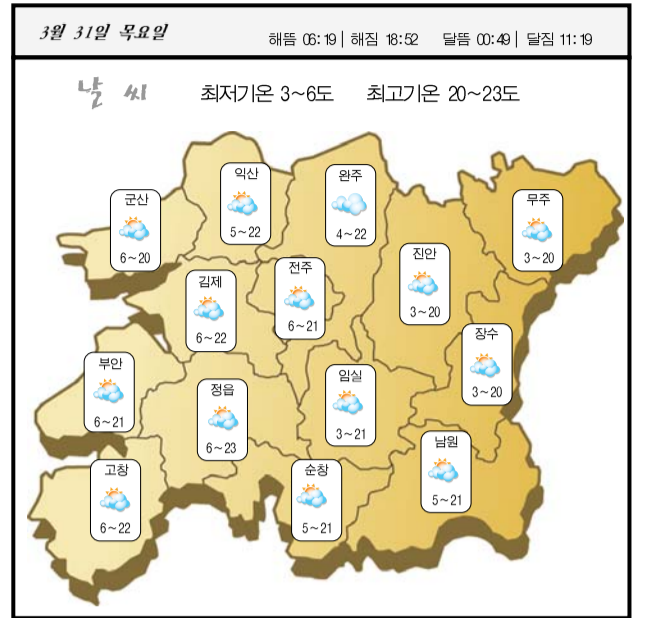
'무형유산으로 즐거운 전주'를 위해

시는 체험객들이 전주의 무형문화재(28종목, 38명·2단체)와 세계 최고의 무형유산 복합행정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을 연계해 맛과 멋 흥으로 풀어내는 문화유산을 체험하게 된다.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 야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타지역 관광객을 위해서 숙박 체크인도 다음날 15시

까지 연장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업소와 협의하고, 홍보 전략으로 KTX와 한국관광공사와도 연계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전략이다.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상·하반기 2회 개최 예정인 야행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익산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체험 현장학습

익산교육지원청이 지난 29일 익산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한 문화체험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학습엔 관내 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1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진포해안테마공원, 일제 강점기에 김제 해안평야의 쌀을 실어 일본으로 운반하기 위해 만든 부진교를 돌아봤다.

특히 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진포대첩에 관한 영상물도 시청하는 시간을 갖는 등 현장학습을 통해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 인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류지득 교육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한 교육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기재부 '세계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 승인

2023 세계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려는 전북도의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건을 국제행사로 승인했다.

이에 앞으로 정부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고 기업의 공식적인 지원(후원)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외교부를 통한 재외공관에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가능하게 돼, 세계 각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한 공격

적인 유치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이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재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연구용역에 적극 대응해 정부 지원 기준선인 사업비의 30%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총회 및 각국 핵심멤버들을 대상으로 맨투맨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다음달 20일에 개최되는 브라질 총회에도 참석해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영수 기자

'동물원으로 벚꽃나들이 떠나요!'

전주동물원이 벚꽃이 만개하는 봄철을 맞아 야간개장에 들어간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벚꽃과 환상적인 조명이 어우러진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주동물원 개장시간을 평소보다 4시간 연장해 밤 11시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람로 1.5km의 벚꽃거리와 350여 그루의 토종 왕벚꽃나무가 만개하는 전주동물원의 야경은 봄철 최고의 볼거리로 평가되고 있다.

동물원은 야간개장에 앞서 벚꽃거리에 특수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

전주시, 4월 1일~10일 밤 11시까지 개장

불빛에 비친 왕벚꽃 터널의 아름다움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명구간을 확대하고, 동물캐릭터와 하트, 천사의 날개 등 다양한 포토존 조명을 추가 설치해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왕벚꽃 터널 등 벚꽃 구간에는 벚꽃과 어울리는 순백색의 아름다운 LED조명이 설치되고, 동물원 입구에서 시민탐까지 100여 그루의 수목 들에는 흡사 별빛이 쏟아지는 느낌

의 트리조명과 비단경관 조명이 연출된다. 또 기린지(기린 연못) 주변의 토퍼아라에는 다양한 포토존을 위한 조명이 설치되고, 도화원과 잔디광장에는 각각 화려한 '천사의 날개'와 '형형색색의 동물캐릭터 조명'을 설치해 관람객들을 맞는다.

드림랜드의 놀이시설과 동물원 내 음식점과 매점도 연장 운영한다.

동물원은 야간개장으로 인해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각종 문화공연은 한국소리문화의전

당 야외무대로 자리를 옮겼다.

관객 증가에 대비해 정문에서 200m 떨어진 주차장 부근에 제2회 포소(남문)를 개설할 계획이다. 동물원 운영 시내버스도 증차해 연장 운행된다.

동물원 관계자는 "벚꽃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밤 10시 이후는 입장이 제한되므로 늦지 않게 오셔서 벚꽃의 향연을 즐기고 힐링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동물원 봄철 야간개장 입장료는 어른 13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400원이다. /김영재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2016년 4월 GRAND OPEN
 ◆사전운영기간 2015. 9 ~ 2016. 3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빼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하나 백두대간 달린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www.eco-edu.or.kr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9-9 /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5760